헤센 독서 모임 July 20, 2025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일간 이슬아 – 다시 하는 이에게: 수정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일간 이슬아' 구독 중 읽게 되었고, 해당 회차에 소개된 책 출간 비하인드가 흥미로워 결국 그 책도 읽게 되었음

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읽어주세요.

데뷔하기 전부터 내 취미는 편집자들의 SNS 계정을 구경하는 것이었다. 책이 작가의 저력 말고도 편집자의 미감, 기획력, 작가에 대한 이해, 시대를 읽는 눈, 윤문과 디렉팅 실력의 총합임을 알아차리면서 편집자 덕질은 시작된다. 나는 김진형 편집자가 만들어온 기품있는 양서들을 좋아했다. 그의 손을 거친 책은 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세련되었고, 완벽에 가까웠다. 말하자면 그는.. 출판계의 윤상이었다.

"각 글에 대한 개고 의견은 소략하게 제시해드려요."
...나는 그가 출판계의 윤상인 줄 알았는데, 출판계의 이동진이었던 것이다.

4. 각 글에 대한 개고 의견은 소략하게 제시해드려요.

순서	제목	분량	beautiful	funny	sensible	instructive	키워드	개고 의견
1	착한 여자는 천국에 가고 나쁜 여자는 어디에나 가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군부대로 강연을 간다	61	★★★	★★★★★	★★★	★★★★	군부대, 찬이, 북콘서트, 한 시랑, 좋됐다	• 군더더기 없이 속도감 있게 읽히고 재밌음. 감동이나 교훈을 요구하지 않아서 좋음. • '비다를 펴놓고 당신을 그린다'…문장의 주제가 '사내'라는 점만 빼면 제목으로도 좋을 듯. • 첫 문장을 조금 더 간결하게 하면 어떨지? • '찬이' 또는 '찬희'? • 작가의 책을 처음 읽는 독자는 '괴술'을 오지로 볼 듯.

1

순서	제목	분량	beautiful	funny	sensible	instructive	키워드	개고 의견
2	백 년의 고독과 재주	33	★★★★	★★★★	★★★★	★★★★★	증조할머니, 순남, 무당, 구술생애사, 복희, 그랜드 도터	• 첫 글과 다른 문체로 시작하는데, 오히려 괜찮아 보임. 이슬아의 유래(순남-복희-슬아의 계보)를 읽다 보면 '여자의 계보'라는 보편적 질문으로 연결됨. • 제목을 바꾸는 게 어떨지요? '그랜드 도터'? 노래가 좋은데 큐알코드를 넣으면? • 복희씨는 할머니가 초라하게 돌아가셨다고 회상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하면 어떨지? 어떻게 돌아가셨길래 복희씨는 지금도 그것을 아파하는지?
3	안녕히 넘어가시길	31	★★★★	★★★	★★★★	★★★★	아빠, 엄마, 가족, 영원, 그해 여름, 재회, 애인, 선경	• 가족, 애인, 친구, 그리고 영원에만 있는 고유하고 유일한 것들을 그린다. • 앞 글에 이어 가족 이야기는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데, 그다음 이어지는 서점 이야기부터는 사뭇 다른 느낌. 이 둘 사이를 잘 잇는 게 중요한 듯. • 신문을 읽고 나면 제목이 어울리는데, 읽기 전에는 다소 지루한 제목 같기도 함.
4	생일날	20	★★★	★★★★	★★★	★★★	생일, 단, 낯선 행성, 다린, 전국노래자랑, 낯선 행성	• 제목 재고. '낯선 행성에서의 즐겁고 터무니없는 상상들' '즐겁고 터무니없는 이야기' • 기프티콘 이야기 이후 다소 밋밋한 느낌도 있는데 좀 더 리듬감 있게 가면 좋을 듯. • 나이 언급 부분 재고. 현재 고인이 된 송해 선생님과 이슬아의 당시 나이.
5	8월 이후의 인생	15	★★★★	★★★	★★★★	★★★★	친구, 바다, 시간의 속도, 기후 문제	• 아름답고 감각적인 글인데 좀 더 자연스럽게 읽혔으면 하는 바람. 특히 첫 문단에서 주어가 작가인지 친구인지 모호함. 현관에 들어선 건 작가? 거실에 들어선 건 친구? • '지난여름'의 이야기는 좀 더 생동하는 언어로, 그림 그리 듯 디테일하게 묘사하면 좋을 듯. • 마지막 두 문장은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독자도 있을 듯. 우리가 사라져도 바다는 남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바다보다 느리다는 것과 무슨 상관?
6	흥미진진한 미래	36	★★★★★	★★★★	★★★★	★★★★	하마, 오큘러스, 가상세계, VR/AR, 미래, 불안	• 오큘러스를 착용한 이슬아와 이를 지켜보는 하마의 모습이 궁금함. 위트 있는 이슬아 스타일의 삽화가 들어가도 좋을 듯.
7	나는 그의 손 안에 있다	20	★★★★★	★★★	★★★★	★★★★	하마, 미용실 어시스턴트, 두피 마사지, 섬	• 조금 더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하면 어떨지? • 아침에 취약한 하마가 이슬아의 손 안에 있는 이야기도 조금 더 풀어 쓰면 좋을 듯. 모든 우정은 상호 돌봄일 테니까. • 후반부 미용실 이야기는 다소 평범함. 대폭 보완하거나 이 부분은 빼고 하마 이야기에 집중하는 게 어떨지?(이 이야기의 주제는 두피 마사지인가? 돌봄의 우정인가? 전후 이야기 모두 '최고의 두피 마사지'를 소재로 하지만, 전자는 돌봄, 후자는 성실하지만 기계적인 노동.)
8	그에게서 최고의 나를 발견한다	26	★★★★	★★★	★★★★★	★★★★	하마, 반려동물, 탐, 철학자와 늑대, 고통, 두려움, 죽음	• 탐이의 모습을 이슬아 스타일 삽화로 넣으면 어떨지? '행복의 나라' 부분에 이슬아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링크를 큐알코드로 넣으면 어떨지? • 교훈을 담당하는 마지막 두 문장이 조금 작위적인 느낌이 있음.
9	Selves-Portrait	21	★★★	★★★★	★★★★	★★★	친구들, 우정, 김대리, 유아인, 나다움, 자의식 천국과 지옥	• 다듬으면 훨씬 좋은 글이 될 듯. • 자의식 지옥과 자의식 천국의 대비는 좋으나 좀 더 다듬는 게 어떨지? • '권위가 그 옷장에 따라간다'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음.

내가 내놓은 게 별로라는 걸 인정하는 일은 언제나 힘겹다. 정말이지 일이란 건 잘했을 때보다 못했을 때가 훨씬 중요하다. 그때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 나도 김진형 편집자의 마음에 꼭 차는 글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했다. 일을 못 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다시 하는 것.

책이 좋았던 이유와 감상에 대해 말해주세요.

작가도 함께 일하고 싶은 편집자가 있다. 이슬아는 애초에 '얄미우리만치 정확한' 편집자와 일하고 싶었고, 편집자의 판단을 믿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만든 책이 <끝내주는 인생>이다. 글을 아주 여러 번 고치고, 처음보다 나아진 원고를 번갈아 읽고, 그 후에도 또 고친다. 그리고 서로가 '이 작업이 끝나지 않았으면' 이라고 할 만큼 좋았던 작업으로 기억한다.
일을 못 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결국 하나뿐이다. **다시 하는 것.**